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과 평가

오윤미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전문연구원 (ymoh@kiep.go.kr, Tel: 044-414-1203)



차 례

1. 머리말
2. 「포럼」의 주요 내용
3. 평가

주요 내용

-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 2019년 4월 25~27일 37개국 정상과 2개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 150여 개 국가 및 92개 국제기구 인사 총 6,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베이징에서 개최됨.
 - 201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7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련 국가와의 협력 범위 확대 및 수준 강화와 함께 기업 참여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됨.
- ▶ 중국과 포럼 참여국 정상들은 개막식 기조연설 및 정상 라운드테이블 공동성명을 통해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방향과 협력 강화 계획을 표명함.
 -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중요 개혁개방 조치 추진을 통한 대외개방 지속 확대 계획을 발표함.
 - 정상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 종료 후 발표한 공동성명서(「共建“一带一路”开创美好未来——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에는 △ 정책연계 발전 강화 △ 인프라연결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실무협력 강화 △ 인문교류 강화 등에 관한 향후 협력 추진 내용을 포함함.
- ▶ 이번 제2회 포럼에서는 6개의 신규 주제별 회의가 추가되었으며,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企业家大会, CEO Conference)도 신설됨.
 - 이번 포럼에서는 2017년 제1회 포럼과 비교하여 △참여인사 규모 및 체결 계약 규모 확대 △논의 주제 및 범위 확대 △실무협력 논의 강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짐.
 - 특히 중국 및 외국 850여 개 기업이 비즈니스 포럼 신설을 통해 일대일로 공동건설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총 6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체결에 합의함.
- ▶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다자협력의 플랫폼이자 미·중 및 EU·중 마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과의 동반자 관계 심화 구축 플랫폼으로 지속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포럼의 성과에 대해 중국은 공감대 형성과 국제협력 확대 기반 마련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내외부적으로 일대일로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며, 향후 협력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됨.
 - 중국이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직면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발굴 및 상호보완성에 기반한 제3국 시장 협력 등 한·중 간 협력사업 추진모델의 구상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1. 머리말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이 2019년 4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됨.

- 2017년 이후 2년 만에 열린 이번 포럼은 37개국¹⁾ 정상과 2개 국제기구 수장을 비롯하여 150여 개 국가 및 92개 국제기구에서 6,0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함.
- 제1회 포럼은 2017년 5월 14~15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으며, 29개국 정상을 비롯해 130여 개 국가에서 1,500여 명의 각계 인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
- 이번 2019년 제2회 고위급 포럼에는 각국 정상 외에 국제기구, 주중 사절단, 기업계(工商界) 인사, 각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대표 6,000여 명이 참여
- 2017년 제1회 포럼과 비교해볼 때 이번 포럼에서는 주제별 회의 중 6개 주제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企业家大会, CEO Conference)이 신설됨.

표 1.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주요 의제 및 일정

구분	제1회 포럼(2017. 5. 14~15)		제2회 포럼(2019. 4. 25~27)	
개최 규모	29개국 정상, 130여 개 국가 등 1,500여 명의 대표 참여		37개국 정상, 150여 개 국가 및 92개 국제기구 6,000여 명의 대표 참여	
구분	일시	주제	일시	주제
개막식	2017.5.14	일대일로 건설의 협력 추진 (携手推进“一带一路”建设)	2019.4.26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아름다운 미래 창조 (共建“一带一路”, 开创美好未来)
주제별 회의	2017.5.14	정책소통(政策沟通)	2019.4.25	정책소통(政策沟通)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인프라 연결(设施联通)
		무역원활화(贸易畅通)		무역원활화(贸易畅通)
		자금융통(资金融通)		자금융통(资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		민심상통(民心相通)
		싱크탱크 교류(智库交流)		싱크탱크 교류(智库交流)
		-		청렴 실크로드(廉洁丝绸之路)
		-		디지털 실크로드(数字丝绸之路)
		-		녹색 실크로드(绿色之路)
		-		혁신 실크로드(创新之路)
비즈니스 포럼	-	-	2019.4.25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
				지방협력(地方合作)
정상 라운드테이블	2017.5.15	국제협력 강화와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통한 상생발전 (加强国际合作, 共建“一带一路”, 实现共赢发展)	2019.4.27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아름다운 미래 창조 (共建“一带一路”, 开创美好未来)

주: 해외(境外)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정부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협의에 의해 연선국가 내에 설립된 개발구를 의미함.

자료: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2019),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 및 평가」; 각종 언론자료 참고하여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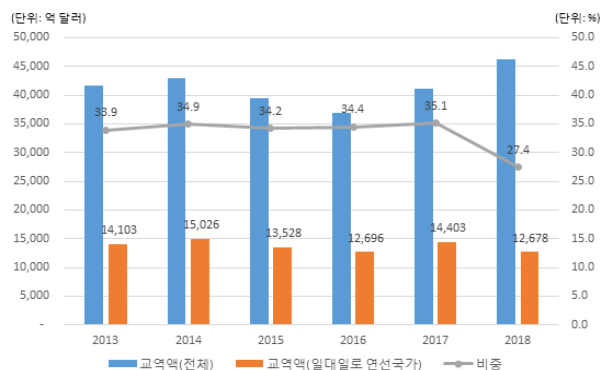
1) 인도네시아는 유수프 카라 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므로, 포럼에 정상이 참석한 국가의 수는 중국 포함 총 37개국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이 2013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올해 추진 7년 차에 접어들면서 관련 국가와의 협력 범위 확대 및 수준 강화와 함께 기업 참여 확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의 무역 및 투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국과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과 국가 간 협력 및 교류 원활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중국은 2019년 3월 기준 125개국 및 29개 국제기구와 173건의 일대일로 협력문건을 체결하는 등 지난 5년간 정책소통 분야의 협력이 크게 확대²⁾
- 2013~18년까지 6년간 중국의 대(對)일대일로 연선국가 교역액이 6조 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교역의 27.4%를 차지하는 한편, 전체 교역 증가율보다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³⁾
- 같은 기간 중국기업의 對일대일로 연선국가 직접투자액은 900억 달러를 초과하였고, 그중 2018년 투자 규모는 156억 달러(비금융분야)를 기록하며 중국 전체 대외직접투자의 12%를 차지

그림 1. 중국의 對일대일로 연선국가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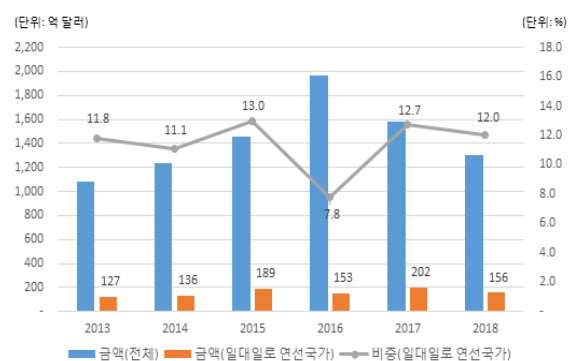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자료: CEIC; 国家信息中心, 「“一带一路”大数据中心」; 大连瀚闻资讯有限公司, 「“一带一路”贸易合作大数据报告2018」.

그림 2. 중국의 對일대일로 연선국가 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



주: 2018년 對연선국가 투자액은 금융분야 직접투자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商务部, 国家统计局, 国家外汇管理局联合(2018), 「2017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2015年度中国对外直接投资统计公报」.

- 기존 물리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었던 일대일로 건설 관련 논의의 범위가 연선국가와의 경제무역협력 확대에 따라 투자·무역 및 통관·물류 원활화와 자유화를 비롯해 자금유통 지원, 혁신, 환경 및 표준 수준 제고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추진 초기에는 도로, 전력망, 공항 등의 물적 자산을 나타내는 하드 인프라 연결성(Hard Infrastructure Connectivity)⁴⁾에 초점이 집중되었으나, 점차 정책, 법제도 및 표준, 시스템적 연계인 소프트 인프라 연결성(Soft Infrastructure Connectivity)의 중요도가 상승
- 이에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연선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심화, 상호신뢰 증진 및 심화, 실무협력 확대 등을 위한 중요 플랫폼이자 외교무대로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활용하고자 함.⁵⁾

2) 新华网(2019), 「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 (4月 22日)

3) 中国政府网(2019), 「“一带一路”，绘就世界和平发展的绚丽工笔画」, (4月 24日)

4) 하드 인프라(Hard Infrastructure)는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전력망 등의 물리적 인프라를 가리키며,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structure)는 문화, 보건·의료, 교육, 재정, 정보 등의 제도를 의미함.

5) 中国政府网(2019), 「首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成果全部得到落实」, (4月 22日)

2. 「포럼」의 주요 내용

가. 개막식 및 정상 라운드테이블

■ 시진핑 주석은 개막식 기조연설을 통해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방향 제시와 함께 개혁개방 조치 추진을 통한 대외개방 지속 확대 계획을 밝힘.

-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제1회 포럼 이후 협력 국가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등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에 있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함.
-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협력 파트너를 아시아와 유럽 대륙부터 아프리카, 미국, 대양주까지 확장하면서 세계경제 성장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제무역·투자 플랫폼 구축, 각국 민생복지 증진에 기여했다고 평가
- 이번 포럼에 앞서 일대일로 건설 업무 추진 영도소조 판공실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 진전, 기여 및 전망(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 보고서⁶⁾를 발표하여 2013년부터 5년간 5통(五通)을 중심으로 거둔 성과와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혁 및 글로벌 경제 구축에 대한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공헌, 향후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직면할 과제와 도전 및 기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⁷⁾
-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방향으로 △공동상의(共商), 공동건설(共建), 공동향유(共享) 원칙 고수와 다자주의 제창 △개방, 녹색, 청렴의 이념 견지 △높은 표준, 민생 혜택, 지속가능의 목표 실현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상호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상호연계 강화를 위해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다자 및 각국 금융기관의 일대일로 투자·용자 참여 △제3국 시장 협력 장려 △무역과 투자 자유화·편리화 촉진 △보호주의 반대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를 통한 중국시장 진입 플랫폼 확대 제공 △디지털 실크로드 및 혁신 실크로드 건설 △개도국의 빈곤탈출 지원 및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노력 △녹색발전 촉진 △광범위한 민생협력 전개 등을 추진할 계획⁸⁾
- 더불어 시진핑은 일련의 중요한 개혁개방 조치를 통한 제도적·구조적 안배 강화와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촉진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재차 밝힘.
- 이와 관련해 중국은 △더 광범위한 영역의 외자 시장진입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확대 △국제 거시경제정책 협력 및 협조 강화 △대외개방 정책 및 법규 시행을 중시할 계획

■ 4월 27일 37개 정상 및 2개 국제기구 수장이 모인 정상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회의 종료 후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이 발표됨.

- 회의 참석 대표들은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아름다운 미래창조(“共建‘一带一路’、开创美好未来”)를 주제로 인

6)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 진전, 기여 및 전망(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은 중국정부가 세 번째로 발표하는 일대일로 건설 진전에 관한 보고서이며 △서언 △진전 △기여 △전망 총 4부분 약 1.8만 자로 구성됨.

7) 新华网(2019), 「共建“一带一路”倡议：进展、贡献与展望」, (4月 22日)

8) 新华网(2019), 「习近平出席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开幕式并发表主旨演讲」, (4月 26日)

프라 연결, 정책연계, 녹색·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등의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함.⁹⁾

-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상호연결 추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정책연계 강화와 긴밀한 동반자 관계 구축’, ‘녹색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과 UN 2030년 어젠다 이행’ 등 세부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
- 회의에 참석한 외국 정상 및 국제기구 책임자들은 지난 5년여간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과 협력이 국가·지역 간 상호연계 강화, 상무역·투자·인프라 건설 및 지속가능한 발전 분야 상호이익 증진, 국제발전 협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함.
- 또한 참석자들은 개혁개방조치 계획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개막식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각국의 국가발전전략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연계와 건설 협력 추진을 통한 성과와 혜택의 공유를 기대

표 2. 공동성명 참여 국가 및 기구 대표

지역	국가/기구	참석자	지역	국가/기구	참석자
동북아시아	중국	시진핑 주석	동북아시아	몽골	할트마긴 바툴가 대통령
동유럽 및 북아시아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서남아시아	UAE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 막툼 부통령 겸 총리, 두바이 통치자
동남아시아	브루나이	하사날 볼키아 국왕	동남아시아	라오스	본랴 보라치트 국가주석
동남아시아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훈 센 총리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빈 모하맛 총리	동남아시아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동남아시아	태국	쁘라윳 짬오차 총리
동남아시아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유수프 카라 부통령
남아시아	네팔	비디야 데비 반다리 대통령	남아시아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	중앙아시아	벨라루스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초대(首任)대통령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소론바이 제옌베코프 대통령
중앙아시아	타지키스탄	에모말리 라흐몬 대통령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유럽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	유럽	체코	밀로시 제만 대통령
유럽	세르비아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	유럽	스위스	울리 마우러 대통령
유럽	포르투갈	마르셀루 헤벨루 드소자 대통령	유럽	오스트리아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
유럽	헝가리	우라반 빅토르 총리	유럽	그리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
유럽	키프로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데스 대통령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비 아메드 총리
아프리카	지부티	이스마일 오마르 겔레 대통령	아프리카	케냐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
아프리카	모잠비크	필리프 뉴시 대통령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이집트	압둘팟타프 시시 대통령
남아메리카	칠레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	오세아니아	파푸아뉴기니	피터 오닐 총리
-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	IMF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

주: 인도네시아는 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였기에 포럼에 정상이 참석한 총 국가의 수는 중국 포함 37개국으로 볼 수 있음.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9), ‘共建“一带一路” 开创美好未来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

9) 中国一带一路网(2019), 「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举行圆桌峰会 习近平主持会议并致辞」, (4月 27日)

- 회의 종료 후 참석 대표들은 공동성명서(「共建“一带一路”开创美好未来——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를 통해 △정책 연계발전 강화 △인프라 연결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실무 협력 강화 △인문교류 강화 등에 관한 향후 협력 추진 방향을 밝힘.¹⁰⁾
- 다자주의 강화를 통한 글로벌 도전에 대처, 개방 및 포용·연동·지속가능한 세계경제 구축 촉진, 정책소통·인프라 연결·무역원활화·자금유통·민심소통 촉진을 통한 상호연계 강화, 실무협력 심화와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추진
- 공동성명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의 지속가능한 재정과 오염 통제 강조, 반부패 국제협력 강화 촉구,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배격 선언,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 및 개방형 다자주의 등을 강조

표 3. 제2회 고위급 포럼 정상 라운드테이블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정책 연계발전 강화	· 지속가능한 발전 어젠다 전개와 관련 논의 장려
	· UN 및 기타 다자기구와 거시경제정책에 관한 대화 강화, 각측의 발전계획과 상호연결 이니셔티브 연계 촉진
	· 관련 이니셔티브와 협력 프레임에 따른 기회 강조 * 삼하(三河) 유역 경제협력 전략 마스터플랜(2019~2023), 비동맹 및 아프리카 인프라 발전 계획, APEC 상호연결 청사진, 아랍국가 연합, 아세안 및 아세안 상호연결 마스터플랜 2025,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아세안 ‘링크 상호연결’ 이니셔티브, 아시아유럽회의의 상호연계 워킹그룹, 아세안 동부 성장 지역, 중앙아시아 상호연결 이니셔티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 공동체, 두바이 실크로드 전략, EU·유라시아 상호연결 전략, 중·유럽 상호연결 플랫폼, EU 동부 동반자 관계, 유라시아 경제연맹, 유라시아 동반자 관계, 중·아프리카 협력 포럼, 그랜드 메콩강 지역 경제협력, 글로벌 인프라 상호연결 연맹, 글로벌그룹 이니셔티브, 란창강(澜沧江)-메콩강 협력, 미주 국가 조직, 태평양 연맹, 태평양 제도 포럼, 지중해 연합 및 기타 지역협력 이니셔티브
	·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촉진, 추가적 시장개방 기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 및 기타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 반대
	· WTO 협정의 ‘특수와 차별대우’의 중요성 강조
	· 통관편리화 중시, 유관부문의 초국경 협조, 정보공유, 세관공조 및 국경통과수속 등 분야 협력 증진 독려
	· 관련 편리화 조치가 WTO의 ‘무역편리화협정’에 부합하도록 독려
	· 외국의 직접투자 촉진과 합자기업 설립에 관한 협력 강화
	· 투자 촉진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유익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 독려
인프라 연결 강화	· 조세협력 강화 희망,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독려, 성장우호형 세수정책 촉진
	· 포용적이고 다원적이며 보편적 혜택의 글로벌 가치사슬 건설 노력
	· 지식재산권 보호와 혁신영역 협력 강화 독려, 전자운송장 채택 장려
	· 지속가능한 남색(蓝色)경제* 발전 지원, 해상연결과 국제해양 협력 강화 호소
	·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인프라 상호연결과 인프라 투자 통한 경제성장 촉진 및 민생개선 지지
	· 내륙국가(陆锁国)의 국경통과 배치 및 인프라 연계 촉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조치 지지
	· 높은 품질의 신뢰성 있고 리스크 예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프라 건설 노력
	· 선진국과 국제투자자들의 대개발도상국 인프라연결 프로젝트 투자 환영
	· 프로젝트의 경제, 사회, 재정, 금융과 환경 방면 지속성 중시, 발전 및 보호 간 균형
인프라 연결 강화	· 프로젝트의 지속성 실현을 위해 프로젝트 준비와 실행 방면에서 각국 협력 강화
	· 모든 일대일로 협력시장 참여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UN 글로벌 콤팩트 준수
	· 각국 상호호환 및 복합형 교통 발전 등의 조치를 통한 상호 호환적 인프라 개발과 육·해·공 연결성 증진 독려
인프라 연결 강화	· 중앙아시아와 카프카스, 유럽,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연결의 통로 건설과 교통 및 교류 촉진

1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9), 「共建“一带一路” 开创美好未来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 (4月 27日)

구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인프라 강화 지지, 에너지 안전 제고 · 금융시장 상호연결 강화 및 포용적 금융 증진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과 저탄소 발전 촉진을 위한 녹색발전 추진 및 생태 지속가능성 촉진 · 녹색채권 발행 및 녹색기술 발전을 포함한 녹색금융 발전 독려, 환경보호 수준 제고 · 환경보호, 순환경제,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 복합 지속가능 수자원관리 등 영역의 협력 강화 ·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물 행동 10년(2018~2028)' 이행상황 중기(中期) 전면심사 결의 · 지속가능한 농업, 임업 및 생태 다양성 보호 방면 협력 전개 독려 · 재해방지 및 재해관리 분야 협력 추진
실무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반부패 협력 전개, 반부패 문제에 대한 묵인 불가방침 채택 및 실무협력 강화 · 실무협력 강화, 중소기업 포함 현지 내(在內) 각국 기업의 협력 참여 독려 · 개방, 투명, 비차별적인 공공조달 절차 채택의 중요성 강조 및 경험 교류 · 경제회랑(经济走廊) 및 경제무역협력구(经贸合作区)(부록 표 참고), 일대일로 관련 협력 프로젝트 지속 건설과 가치사슬·산업사슬·공급사슬 협력 강화 · 내륙 복합운송 강화, 초국경 고속광케이블 포함 디지털 인프라 강화 · 제3국 시장 협력과 제3자 협력 및 정부와 사회자본 협력 추진 독려, 범부협력 추진 · 각 국가 및 국제 금융기구의 협력을 통한 다원적이고 지속가능한 융자지원 지지 · 다자개발은행과 기타 국제금융기구의 지속가능한 재정(财政可持續)방식을 통한 상호연계 프로젝트 지원 확대 독려 · 식량안보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수자원 절약기술 및 농촌혁신 추진의 중요성 강조 · 동식물 위생검역 협력을 통한 농산물 무역 및 투자 촉진 · 각 전문영역의 일대일로 플랫폼 주의(注意)(부록 표 참고)
인문교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간 교류·왕래를 포함한 인문교류 확대 노력 · 인적자원 개발, 교육 및 직업훈련 방면의 협력 강화 · 과학, 예술, 농촌발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여행, 위생,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 협력 추진 · 각국 의회, 우호성시(省市), 싱크탱크, 학계, 언론 및 민간단체, 장애인 등 교류 강화

주: '남색(蓝色)경제 발전'이란 해양경제발전, 해양자원개발 등 해양산업의 총체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국정부의 전략을 의미함.

자료: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19), 「共建“一带一路” 开创美好未来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

나. 주제별 회의

■ 12개 주제별 회의는 5통(五通) 외에 싱크탱크 교류, 청렴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혁신 실�크로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및 지방협력의 분과 토론으로 구성되었고, 참여자간 활발한 의견 공유와 함께 각국 정부 및 관련기관 간 실무협력 및 사업 등을 논의함.

- 이번 제2회 포럼 주제별 회의에는 제1회 포럼에서 다루었던 5통(五通)¹¹⁾과 싱크탱크 교류 외에 청렴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혁신 실�크로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지방협력 등의 분과 주제가 추가

11) 5통(五通)은 중국과 연선국가 간 정책, 인프라, 무역, 자금, 민심의 상호 연계를 의미하며, △정책소통(政策溝通) △인프라연통(設施聯通) △무역창통(貿易暢通) △자금융통(資金融通) △민심상통(民心相通)을 포함함.

■ [정책소통]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주관한 정책소통 분과회의에서는 ‘협력 공감대 심화, 일대일로의 질적 발전 추진(深化合作共识, 推动‘一带一路’高质量发展)’을 주제로 정책연계방식 혁신과 규칙연계 확대 등을 논의함.¹²⁾

- 분과회의는 다시 △공동상의(共商), 공동건설(共建), 공동향유(共享)의 원칙과 정책연계 강화 △ 높은 품질(高质量), 높은 표준(高标准), 높은 수준(高水平)을 견지한 규칙연계 심화 등 세부의제로 나누어 진행됨.
- 50여 개국 및 20여 개 국제기구 300여 명의 정책소통 분과회의 참여인사는 제1회 포럼 이후의 정책소통 진전과 성과, 경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소통 플랫폼 완비와 규칙 및 표준 연계 심화방안을 논의함.
- 참석자들은 제1회 고위급 포럼 이후 중국이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결 등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니셔티브 및 핵심 이념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 농업, 세수, 에너지, 지식재산권 등 전문영역에서의 규칙연계를 전개했다고 평가
- 또한 회의 참여 외부인사들은 정책소통을 인프라, 에너지, 정보, 제조, 경제개발구, 문화 등 영역에서의 일대일로 공동 프로젝트 발전의 핵심 요소로 평가하고, 공동협약에 의한 표준연계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
- 해당 분과회의에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이니셔티브: 진전, 기여와 전망』 보고서의 영어, 러시아,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독일어판 발표와 일대일로 공동건설, 산업생산 협력, 제3국 시장 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문건 체결 및 실무협력 프로젝트 추진 등 60여 건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함.¹³⁾

■ [인프라 연결] ‘안전, 원활, 스마트, 고효율(安全畅通, 智能高效)’을 주제로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와 교통운수부가 공동 주관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육상 및 해상의 신(新)통로 건설에 대해 논의하고 중·유럽 화물열차 협력 심화와 중·유럽 육해쾌속라인(快线) 조성 등의 중점 영역에 대해 토의함.

-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건설과 관련하여 지난 5년간 인프라 연결 부분에서 국제경제 협력 회랑 및 통로 건설에 명확한 진전을 보였으며, 관련 국가와의 인프라 연계 수준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평가함.¹⁴⁾
- 인프라 연결 분과회의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대서양 등에서 온 50여 명의 외국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부장급 공무원 및 국제기구 책임자를 포함한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함.
- 회의 참석인사들은 △인프라 상호연결 추진 △중점영역의 실무협력 심화 등 세부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인프라 상호연계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더불어 △인프라 연결을 우선으로 하여 일대일로 협력의 질적 발전 추진 △교통, 에너지, 정보통신 등 분야 협력을 통해 인프라 연결 네트워크 연계 수준 제고 △하드 인프라 연결(“硬联通”)을 비롯해 정책, 규칙, 표준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연결(“软联通”) 심화와 국제운수 편리화 및 통관 협력을 통한 국제운송통로 안전보호 추진 등을 제시¹⁵⁾
- 분과회의를 통해 교통, 에너지, 전기통신 분야에서 양자·다자 간 MOU, 협력의향서, 투자협약, 협력 프로젝트 등 35건의 관련 협력문서가 체결됨.

12) 新京网(2019), 「12场分论坛集中发布“一带一路”成果」, (4月 26日)

13) 中国一带一路网(2019), 「12场分论坛+企业家大会密集举行, 取得了哪些有含金量的成果?」, (4月 26日)

14) 新华网(2019), 「共建“一带一路”倡议: 进展、贡献与展望」, (4月 22日)

15) 中国一带一路网(2019), 「12场分论坛+企业家大会密集举行, 取得了哪些有含金量的成果?」, (4月 26日)

■ [무역원활화] 중국 상무부가 주관한 무역원활화 분과회의에서는 ‘포용적 개방과 혁신 선도(开放包容, 创新引领)’를 주제로 다자 및 양자 무역협력 심화, 새로운 업태(业态) 무역 발전,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중점의제로 의견을 교환함.

- 무역원활화 분과회의는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 등이 협력 개최하였으며, 60여 개국, 11개 국제기구 및 재계인사 600여 명이 참여함.
- 우크라이나, 헝가리, 싱가포르 등의 정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국제기구 관계자와 중국 수출입은행 및 수출신용보험공사 이사장 등 20여 명의 내외빈이 △다자·양자 경제무역협력 심화와 개방연계 촉진 △무역의 신업태(新业态) 발전과 혁신선도 추진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등 3개 세부주제를 논의¹⁶⁾
- 회의 참석자들은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전방위적 경제무역협력 심화와 일대일로 무역원활화의 질적 발전에 대한 기대를 밝힘.
- 참석자들은 일대일로 협력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이룬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
- 중국 첸커밍(钱克明) 상무부 부부장은 일대일로 무역원활화 실무협력의 가시적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중국은 무역원활화 촉진과 각국과의 경제무역협력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 이를 위해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지속 개최, 시장진입 완화,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지속 축소, 외상투자법 패키지 법규 제정 가속화, 관세 총 수준 조정, 수입환급제도성 비용 축소, 실크로드 디지털 상거래 발전, 전자상거래 협력 심화, 관련 국가와의 디지털 경제 발전 공동추진,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 등의 추진 계획 제시¹⁷⁾
- 또한 △개방, 자유무역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지지 △시스템 연계 강화를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수준 제고 △서비스 무역 확대, 실크로드 디지털 상거래 발전, 녹색금융 발전 등 협력방식의 혁신 △국가, 국제기구 및 기업의 참여를 통한 다자간 우위 발휘와 상호이익 실현 등 4가지 방면에서 무역원활화의 질적 발전 추진을 건의¹⁸⁾

■ [자금유통] 재정부와 중국인민은행이 주관한 자금유통 분과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융자 촉진, 개방적이고 시장주도적인 투자·융자 체계 구축, 일대일로 공동건설 질적 발전 추진(促进可持续融资, 构建开放、市场导向的投融资体系, 推动共建‘一带一路’高质量发展)’를 주제로 정책 표준체계 완비와 융자 추진방안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함.

- 이번 분과회의에는 러시아, 나이지리아, 수리남, 바누아투, 영국, 스위스 등 국가의 재정부, IMF, AIIB, WB, NDB, 국제농업발전기금, 남미개발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와 기업계 대표 260여 명이 참여함.¹⁹⁾
- 회의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하고 개방적인 투자·융자 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 정책표준 체계 개선 등을 통한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 촉진에 대해 논의함.
- 특히 이강(易纲) 인민은행 총재는 일대일로 건설의 새로운 진전을 위한 금융의 지원 역할 강화와 자금지원 시스템의 완비 및 자금조달 지원의 시장화, 다원화 추진 등을 언급

16) 商务部官网(2019), 「贸易畅通分论坛释放深化经贸合作的开放强音」. (4月 25日)

17) 商务部官网(2019), 「贸易畅通分论坛释放深化经贸合作的开放强音」. (4月 25日)

18) 中国一带一路网(2019), 「12场分论坛+企业家大会密集举行, 取得了哪些有含金量的成果?」. (4月 26日)

19) 中国一带一路网(2019), 「中联部:“一带一路”建设民心相通工作取得丰硕成果」. (4月 24日)

- 회의를 통해 중국정부의 채무 관련 조치를 비롯하여 중국과 다자금융기구 및 협회 간 실무협력 방면의 5가지 중요한 성과가 도출됨.
- △중국 재정부 ‘일대일로 채무 지속가능성 분석 프레임(“一带一路”债务可持续性分析框架)’ 공식 발표 △AIIB 등 8개 다자개발기구의 다자개발용자협력센터 공동 설립 △뉴질랜드, 러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등 9개 국가 회계기준 제정기구의 ‘일대일로 국가 회계기준 협력 강화에 관한 이니셔티브(“一带一路”国家关于加强会计准则合作的倡议)’ 발의 △ADB와 영국 특허공인회계사협회, 중앙아시아지역 경제협력학원 연합으로 중국·중앙아시아 회계엘리트 교류 프로젝트 시작 △일본 및 말레이시아 등과 회계감사 관리감독 협력문건 서명 등이 주요 성과로 도출²⁰⁾

■ [민심상통] ‘민심상통 공동촉진, 민생협력 공동대화, 아름다운 생활 공동 창조(共促民心相通共话民生合作共创美好生活)’를 주제로 중국공산당 중앙대외연락부가 주관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농촌부, 교육부 등 17개 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에서는 민심상통 분야의 일대일로 건설 성과와 미래 중점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민심상통 분과회의에는 총 61개국 13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여 민간협력 분야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송타오(宋涛) 중앙대외연락부장은 일대일로 건설의 ‘인류운명공동체의 중요한 플랫폼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대일로의 질적 발전 추진에 있어 민심상통 실현을 위한 상호간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
- 회의에 참석한 모잠비크, 세르비아, 미얀마 정부 관계자들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진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언급
- 회의에서는 실크로드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가 제안한 ‘실크로드 한가족(丝路一家亲)’ 행동이 정식 시행되어 민생분야 협력 및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실크로드 민간조직 협력 네트워크는 제1회 고위급 포럼 개막식에서의 건설 제안에 힘입어 중국 민간조직 국제교류 촉진회와 각국 협력 파트너들이 신속하게 호응하여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이며, 현재 60여 개국 300여 개 회원조직을 포함²¹⁾
- ‘실크로드 한가족(丝路一家亲)’ 행동은 2년 내에 연선국가의 민간조직이 500쌍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연선 개발도상국에서 200개의 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

■ [싱크탱크 교류] 중국공산당 중앙선전부(中宣部) 주관으로 ‘인류의 지혜 공유와 글로벌 발전 공동촉진(共享人类智慧, 共促全球发展)’을 주제로 공동상의(共商), 공동건설(共建), 공동향유(共享), 공동노력(共同努力) 등에 대해 논의함.

- 본 분과회의에는 60여 개국 및 지역의 싱크탱크와 언론 대표 300여 명이 참여하여 △일대일로와 각국 발전전략 및 계획의 연계 △공평·개방·투명한 일대일로 국제규칙체계 구축 △발전의 포용적 공동향유 △인류운명공동체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중국 선전부 관계자들은 싱크탱크 교류 분과의 성과와 함께 일대일로 국내외 싱크탱크 협력교류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황쿤밍(黄坤明) 중국선전부장은 일대일로 연구교류 협력 심화에 대한 4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

20) 中国一带一路网(2019), 「12场分论坛+企业家大会密集举行, 取得了哪些有含金量的成果?」. (4月 26日)

21) 新浪网(2019), 「“丝路一家亲”行动未来2年将开展200项民生项目」. (4月 25日)

- 고 중국과 외국 싱크탱크 및 언론의 공동상의·발전, 플랫폼 공동건설, 성과 공동향유를 희망한다고 발언
- 싱크탱크 교류 분과회의의 전후 일대일로 언론협력 연맹의 초대 이사회와 일대일로 국제 싱크탱크 협력위원회 창립대회 등이 개최됨.
 - 포럼 개최에 앞서 5월 24일 신화사 연구원은 15개 중·외국 싱크탱크와 연합하여 공동으로 일대일로 국제 싱크탱크 협력위원회를 발족했으며, 창립총회에는 60개국 130여 개 싱크탱크 전문가·학자들이 참석
 - 국제 싱크탱크 협력위원회는 학술교류 플랫폼과 과제협력 플랫폼,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대일로 관련 과제연구와 의식(思想)교류를 추진할 계획
- [청렴 실�크로드] 중앙기율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주관하고 외교부가 협력 주최한 청렴 실�크로드 분과회의에서는 ‘청렴 실�크로드의 공동상의, 공동건설, 공동향유(共商共建共享)’를 주제로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기업의 청렴준법 경영 △국제사회의 반부패 협력 강화 등 3가지 세부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청렴 실�크로드 분과회의에는 30개 국가 및 국제기구 15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여 관련 경험의 공유와 함께 청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기업의 청렴준법 경영능력 제고, 일대일로 반부패와 법치교류 협력의 플랫폼 공동건설을 목적으로 의견을 교환함.²²⁾
 - 포럼 참석대표들은 정부 차원에서는 각국이 반부패 법치 체계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청렴한 새로운 형태의 정경(政商)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비즈니스 뇌물사건 조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
 - 더불어 기업 차원에서는 준법 경영능력을 적극적으로 제고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육성과 리스크 방지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 반부패와 법치교류 협력체제 건설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 포럼 기간 중국은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비즈니스 학술계 대표들과 공동으로 ‘청렴 실�크로드 베이징 이니셔티브(廉洁丝绸之路北京倡议)’를 공동 발의²³⁾하는 한편, 중국 국가감찰위원회(国家监察委员会)는 필리핀 대통령 반부패위원회 및 태국 반부패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디지털 실�크로드] ‘21세기 디지털 실�크로드 공동건설(共建21世纪数字丝绸之路)’을 주제로 디지털 경제, AI 등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시티 건설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해당 포럼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약 30개 국가 및 국제조직 관계자와 내빈 220여 명이 참여함.
 - 포럼 참여자들은 혁신 드라이브 발전, 디지털 경제, AI, 스마트시티 건설 등 분야의 협력 심화 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 린넨수(林念修)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이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16개 국가와 디지털 실�크로드 건설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7개 국가와 공동으로 일대일로 디지털경제 국제협력 이니셔티브(“一带一路”数字经济国际合作倡议) 합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30개가 넘는 육상케이블 및 10여 개의 국제 해저케이블 건설²⁴⁾ 등 구체적 추진 성과를 제시

22) 中国一带一路网(2019), 「廉洁丝绸之路分论坛发起“北京倡议”」, (4月 25日)

23) 中国一带一路网(2019), 「12场分论坛+企业家大会密集举行, 取得了哪些有含金量的成果?」, (4月 26日)

- 양샤오웨이(杨小伟)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은 2년 동안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국가의 공동 노력으로 디지털 실크로드가 기존 ‘이념’에서 ‘행동’으로 전환되었고, 17개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와 중국은 양자간 전자상거래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초국경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공동건설했다고 발언²⁵⁾
- 포럼에 참석한 외국 관계자들은 사회경제 발전 추진에 있어 디지털 경제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이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²⁶⁾
- 디지털 실크로드 분과회의에서는 8개국 15개 기업이 8개의 신규 협력 프로젝트 문건을 체결 교환함.
- 신규 체결 협력 프로젝트는 △ZTE와 이스탄불 대공항의 ‘공항 디지털화 건설사업 협력협정(机场数字化建设项目的合作协议)’ △파도위해해외서비스 유한공사와 카자흐스탄 국영철도텔레콤 간의 ‘카자흐스탄 전국데이터센터협력협정(哈萨克斯坦全国数据中心合作协议)’ △베이징사달사대 소프트웨어기술주식회사와 나이지리아 국영TV 간의 ‘나이지리아 국가방송국(NTA) 디지털화 패키지 사업 협력 의향서(尼日利亚国家电视台(NTA)数字化整转项目合作意向书)’ 등을 포함

■ [녹색 실크로드] 회의에서는 ‘녹색 일대일로 건설과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달성 협력(建设绿色‘一带一路’, 携手实现2030年可持续发展议程)’을 주제로 일대일로 녹색발전의 국제연맹 성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생태환경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해당 분과회의에는 30여 개국 정부부처와 관련 국제기구, 연구기관 및 재계인사 300여 명이 대표로 참여함.
- 회의 참석자들은 생태문명 및 녹색발전의 이념과 실천 내용을 공유하고 국가의 2030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과 녹색운명공동체 조성 추진 등 녹색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전략·정책과 협력기제 등의 모색에 의견을 모음
- 분과회의에서는 일대일로 녹색발전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성과 관련 이니셔티브들이 발표됨.²⁷⁾
- 포럼 참석자들은 일대일로 녹색발전 국제연맹을 결성하고 일대일로 녹색발전 협력을 위한 정책대화 및 소통 플랫폼, 환경지식과 정보 플랫폼, 녹색기술 교류 및 이전 플랫폼 구성에 합의
- 또한 일대일로 생태환경보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정식 가동하고 친환경 고효율 냉매 행동 이니셔티브와 녹색 조명행동 이니셔티브, 녹색 해외진출(走出去) 이니셔티브를 발표
- 포럼기간 중에는 일대일로 녹색발전 국제연맹의 첫 전체회의가 개최되어 연맹의 100여 개 중·외국 파트너 대표가 참석

■ [혁신 실크로드] 과학기술부가 주관한 혁신 관련 분과회의에서는 ‘혁신협력, 미래 공동창조(携手创新, 共创未来)’의 주제 아래 중국과 연선국가의 효과적인 발전전략 연계 및 산업협력 촉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해당 주제별 회의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고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중국과학기술협회가 협력 주최하였으며, 총 33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약 15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함.
- 회의 참석자들은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과학기술 혁신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발전수요에 더욱 부응한 혁신

24) 新华网(2019), 「数字丝绸之路分论坛聚焦创新驱动数字经济等领域发展」, (4月 26日)

25) 新华网(2019), 「数字丝绸之路分论坛聚焦创新驱动数字经济等领域发展」, (4月 26日)

26) 新华网(2019), 「数字丝绸之路分论坛聚焦创新驱动数字经济等领域发展」, (4月 26日)

27) 中国一带一路网(2019), 「12场分论坛+企业家大会密集举行, 取得了哪些有含金量的成果?」, (4月 26日)

요소 자원을 모아 혁신 실�크로드 건설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

- 왕즈강(王志刚) 과학기술부장은 중국이 국가과학기술 계획과 프로젝트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공동건설 국가와 연합실험실을 조성할 것이라고 발언
- 또한 AI, 생명과학, 첨단제조업, 현대농업 등 첨단분야에 협력 프로젝트를 전진 배치하여 공동건설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각 국가의 경제 전환과 산업구조 조정에 새로운 과학기술 동력을 제공할 계획²⁸⁾
- 상무부와 중국공정원 관계자는 관련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하며 효과적인 협력 메커니즘 및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관련 공공제품을 제공하고 공정(工程)과학기술 혁신의 활력을 함께 불러일으킬 것을 제언

■ [해외경제무역협력구] 회의에서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협력과 일대일로 국제투자협력 추진(携手共建境外经贸合作区, 推动‘一带一路’国际投资合作)’을 주제로 해외경제무역협력구 건설과 발전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함.

- 회의는 중국 상무부가 주관하고 농업농촌부와 중화전국공상상업연합회가 협력 개최하였으며, 11개국과 홍콩특별행정구 대표가 참여함.
- 중국 측 한장부(韩长赋) 농업농촌부 장관과 쉬러장(徐乐江) 공상연합회 상무부주석, 첸커밍(钱克明) 상무부 부부장이 축사를 하고 조지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 외국 인사가 발표
- 회의 참석대표들은 국가간 정책연계, 융자혁신, 서비스 편리화 및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해외경제무역협력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공간 창출에 공감대를 형성함.
- 경제무역협력구는 산업사슬의 완비와 높은 집중도, 뚜렷한 정책 커버리지 효과, 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중요 플랫폼으로서 향후 관련 국가간의 중점 지원 및 활용 제고 예상
- 포럼 기간 중 UN 개발계획부와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은 공동으로 일대일로 해외경제무역협력구에 관한 보고서(“一带一路”中国境外经贸合作区助力可持续发展报告)를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해외경제무역협력구가 초청국(东道国) 경제발전 추진의 중요한 엔진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초청국의 고용증대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등 방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²⁹⁾

■ [지방협력]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와 베이징시 정부가 공동주관한 지방협력 분과회의에서는 ‘지방협력 심화와 발전성과 공동향유(深化地方合作, 共享发展成果)’를 주제로 일대일로 지방협력 성과와 협력 전망에 대한 의견을 나눔.

- 해당 분과회의에는 40여 개국 및 지역의 성장·주지사 및 시장 및 대표를 비롯하여 국제기구와 기업이 대표와 전문가 학자 등 3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함.
- 중국 및 외국 측 대표들은 일대일로 지방교류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의 기회와 미래를 전망해봄.
- 각 성장·주지사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각국 지방협력에서 가지는 긍정적 의미에 공감하고 향후 각국 지방간 교류 증진과 일대일로 공동건설에의 적극 참여를 통해 지방 경제사회 발전 및 민생개선 추진, 각국 지방정부와의 실무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의 우호도시 관계 발전 의견을 공유

28) 中国一带一路网(2019), 「12场分论坛+企业家大会密集举行, 取得了哪些有含金量的成果?」, (4月 26日)

29) 中国一带一路网(2019), 「境外经贸合作区分论坛达成共识 加强政策对接、规划引导」, (4月 25日)

- 리샤오린(李小林) 중국국제우호도시연합회장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발표된 이후 5년 동안 각국 지방정부들이 공동상의(共商), 공동건설(共建), 공동향유(共享)의 원칙에 따라 각 영역별 교류 확대와 실무협력 심화를 통해 일대일로에 적극 참여했다고 평가³⁰⁾
- 현재까지 중국은 5개 대륙 136개 국가 및 지역과 2,629개의 우호도시 관계를 구축하며 민간교류를 적극 확대
- 포럼기간 동안 우호도시 체결, 인문교류, 경제무역협력 등 여러 방면에 걸쳐 14건의 중·외국 지방협력 협약이 체결되면서 일대일로 지방협력 강화 및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함.³¹⁾

다. 비즈니스 포럼(企业家大会, CEO Conference)

■ 중국무역촉진화와 전국비즈니스연합회,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 주관하여 신설 개최한 비즈니스 포럼은 재계의 소통 및 교류, 협력연계, 프로젝트 계약, 협력 심화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함.

- 25일 포럼에는 88개 국가 정부부처 및 관련 국제기구, 무역투자촉진기구, 상회 및 협회, 기업 등 850여 명의 대표가 참여하여 각국 재계의 상호교류 심화 및 일대일로 협력 기회를 모색함.³²⁾
- 비즈니스 포럼에는 에너지, 금융, 농업, 인프라 등 전통산업은 물론 국경간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등 新경제업태 분야를 포괄하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여 실무적 협력 논의와 프로젝트 체결 등을 진행
- 포럼에 참여한 500여 개 중국기업과 300여 개 외국기업 중에는 세계 500대 기업이 90개, 중국 500대 기업이 78개 포함되었으며, 중국의 중앙국유기업(央企)과 민영기업은 각각 100여 개, 200여 개 참여
- 전체회의에 이어 업종별로 1,000여 회의 1:1 상담 등이 진행되어 인프라, 에너지자원, 산업협력, 민생사업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투자 프로젝트와 공정건설 프로젝트, 기술협력 프로젝트 및 무역계약 등 총 약 6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체결됨.³³⁾
- 더불어 포럼에서는 일대일로 채무지속성 분석 프레임(“一带一路”债务可持续性分析框架)과 일대일로 국가의 회계준칙 협력 강화 이니셔티브(“一带一路”国家关于加强会计准则合作的倡议) 등의 실무성과가 발표
- 이번 비즈니스 포럼의 개최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에 있어 각국 기업에게 새로운 성과 도출, 업그레이드를 통한 기회 창출, 새로운 역할의 안정적 수행 등 추진을 위한 기업간 실무협력 심화와 상호이익 실현의 플랫폼을 제공함.³⁴⁾

■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한 협회 및 기업 대표들은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협력 확대 기회를 환영하는 한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체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0) 新华网(2019), 「地方合作分论坛签署14项中外地方合作协议」, (4月 26日)

31) 中国一带一路网(2019), 「地方合作分论坛签署14项中外地方合作协议」, (4月 26日)

32) 中国一带一路网(2019), 「12场分论坛+企业家大会密集举行, 取得了哪些有含金量的成果?」, (4月 25日)

33) 一带一路企业家大会网(2019), 「大数据看第二届高峰论坛关注热点: 企业家大会最受关注」, (5月 28日)

34) 央视网(2019), 「“一带一路”企业家大会首次举行 快来看“企业家们”都签约了哪些“大单”?」, (4月 26日)

- 회의에 참석한 무역촉진기구를 비롯한 여러 협회 및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고위급 포럼에서 신설된 비즈니스 포럼이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긍정적 기회로 평가하는 한편, 향후 조사 연구 및 소통연계 강화, 협력 플랫폼의 공동건설, 서비스보장 개선 등을 통해 일대일로 건설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³⁵⁾
- 더불어 포럼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일대일로 국제협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 및 지역의 기술, 법률규범, 표준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함.³⁶⁾

3. 평가

■ 이번 제2회 포럼에서는 2017년 제1회 포럼과 비교하여 △참여인사 규모 및 체결 계약 규모 확대 △논의 주제 범위 확대 △실무협력 논의 강화 등의 특징이 두드러짐.

- 제1회 포럼에는 29개국 정상을 비롯해 130여 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1,500여 명이 참여하였으나 이번 포럼에는 37개국 정상과 150여 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 총 6,000여 명이 참석하며 규모가 크게 확대됨.
- 중국은 제1회 포럼을 통해 5대 부문에 걸친 270여 개의 성과를 제시³⁷⁾하였고, 2019년 제2회 포럼에서는 제1회 포럼 개최 이후 이번 포럼 기간에 걸쳐 도출한 6개 분야 총 283건의 성과를 발표함.³⁸⁾
 - 6대 분야는 △중국 측이 제시한 조치 및 협력 이니셔티브 △고위급 포럼 기간 또는 직전 체결한 양자·다자간 협력문건 △고위급 포럼 프레임 아래 구축한 다자협력 플랫폼 △투자류 프로젝트 및 목록 △융자류 프로젝트 △중국·외국 지방정부와 기업 추진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포함³⁹⁾
- 제2회 포럼의 주제별 회의에는 제1회 때 논의되었던 의제(5통(通), 싱크탱크 교류) 외에도 △청렴 실�크로드 △디지털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 △혁신 실�크로드 △해외경제무역협력구⁴⁰⁾ △지방협력 등 글로벌 이슈와 중국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새로운 의제가 포함됨.
 - 디지털 경제, 친환경·녹색, 혁신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이 회의에서 새롭게 논의
 - 더불어 중국이 대외개방 확대 및 국제협력 강화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있는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지방협력 등이 신설 분과회의의 논의 주제로 선정
- 제1회 포럼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개념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제2회 고위급 포럼은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을 위한 세부 분야 및 실무협력에 논의가 집중됨.
 - 그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이니셔티브의 초점 역시 정책 협력, 민생 프로젝트, 무역·투자 자유화 및 편리화, 싱크탱크 및 언론 공동노력 등 소프트 인프라 연결성(Soft Infrastructure Connectivity)으로 집중도가 이동⁴¹⁾

35) 中国日报中文网(2019), 「“一带一路”企业家大会在京举行 与会代表称赞“一带一路”带来巨大机遇」, (4月 25日)

36) 一带一路企业大会网(2019), 「“一带一路”企业家大会在北京成功举办」, (4月 25日)

37)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2017), 「2017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의 주요 내용 및 평가」, (6월 7일)

3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官网(2019), 「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成果清单」, (4月 27日)

3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官网(2019), 「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成果清单」, (4月 27日)

40) 해외(境外)경제무역협력구는 중국정부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협의에 의해 연선국가 내에 설립한 개발구를 뜻함.

41) The Diplomat(2019), “China’s Belt and Road Debate.” (April 26)

■ 특히 2019년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에서는 비즈니스 포럼 부문이 신설되어 중국 및 외국의 850여 개 기업이 일대일로 공동건설 참여의 기회를 모색함.

- 이번 비즈니스 포럼은 민간기업의 일대일로 참여와 중·외국 기업 상호간 교류 및 협력 기회 확대의 플랫폼으로 활용되어 총 약 640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성과⁴²⁾를 도출함.
- 왕이웨이(王义桅) 중국 인민대 교수는 국유기업이 우위를 보이는 인프라 위주의 1단계에서 벗어나 2단계에 접어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추진이 향후 중국 및 외국 민간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표명
- 또한 왕이웨이(王义桅)는 중국이 하드웨어적 우위를 기반으로 선진국의 프로젝트 관리 등 방면의 우위를 벤치마킹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제3국 시장에서 협력하는 것도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민간기업에게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⁴³⁾
- 더불어 과거 정부 혹은 국유기업에 의한 일대일로 관련 프로젝트 추진이 자금 조달이나 이윤 회수 등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바, 중국은 리스크 분산을 위해 연선국가와의 실질적 협력 및 계약 체결의 확대를 원하고 있음.⁴⁴⁾

■ 중국은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을 다자협력의 플랫폼이자 미·중 및 EU·중 마찰 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과의 동반자 관계 심화 구축의 플랫폼으로 지속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다자·양자 간 협력체계 및 경제체제 구축에 있어 네트워크를 주변국 → 일대일로 연선국가 → 전 세계 높은 표준의 자유무역구로 확대하려는 FTA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⁴⁵⁾
- 이러한 FTA 네트워크 확대 조성에서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다각적인 협력 강화는 양자간 협력기제는 물론 개방형 세계경제 체제 및 지역적 경제통합체 구축에 매우 중요⁴⁶⁾
- 이에 포럼 기간 동안 중국은 러시아, 칠레, 파키스탄, 싱가포르, 이탈리아, 스위스, 카자흐스탄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 정상과 양자·다자 면담 추진
- 또한 외부에서는 중국이 본 고위급 포럼을 통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환을 유도하는 한편, 포럼 참석국가 정상과의 면담을 통해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및 심화를 적극 추진하여 대외적 도전요소에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함.⁴⁷⁾
-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벨라루스 등 유럽 12개 국가 정상은 이번 포럼에 참석하며 일대일로에서 창출되는 기회에 대한 기대를 반영⁴⁸⁾
- 중국은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일대일로 관련 협력을 추진하면서 상호신뢰 증진과 동반자 관계 심화를 통해 우호 협력 국가의 범위 및 지역을 지속 확대

42) 新浪网(2019), 「习近平: 论坛期间签署总额640多亿美元项目合作协议」, (4月 27日)

43) 环球网(2019), 「学者: 民营企业在“一带一路”倡议中将面临更大机遇」, (4月 25日)

44) CSIS(2019), “China’s Second Belt and Road Forum.” (April 24)

45)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8), 「一带一路拓展中国自贸朋友圈」, (9月 4日)

46) 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2019), 「我国与一带一路沿线国家自贸区网络加速形成」, (1月 28日)

47) Bloomberg(2019), “Xi Jinping’s Second Belt and Road Forum: Three Key Takeaways.” (April 28)

48) The Diplomat(2019), “Who Is(and Who Isn’t) Attending China’s 2nd Belt and Road Forum?” (April 27)

■ 중국은 이번 포럼의 성과와 진전에 대해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질적 발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제협력 확대 기반의 마련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정상 라운드테이블 종료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개방·청렴·녹색발전 지지, 보호주의 반대, 높은 표준 및 민생보호, 지속가능 이념 이행 등을 통한 일대일로 건설의 질적 발전에 대한 포럼 참여국과의 공감대 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함.⁴⁹⁾
- 더불어 시진핑 주석은 미래 일대일로 공동건설을 위해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강화 △경제발전 이니셔티브 및 규칙 연계 등 글로벌 상호연결의 동반자 관계 구축과 협력기제 강화 △다자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개최 정례화 등에 대한 지지를 밝힘.

■ 그러나 포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대일로 관련 추진사업에 대한 내외부적으로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협력 추진에 있어 중요한 선결과제로 꼽힘.

-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협력 심화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외부의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중국 외부에서는 일부 일대일로 연선국가에서 사업 체결 후 채무, 토지 압류, 부패, 환경파괴, 일자리 창출 실패, 사업에 대한 효율성·투명성·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제기
 -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등은 일대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부채 증가를 이유로 사업의 재협상 및 축소, 전면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⁵⁰⁾
- 일대일로 통로의 핵심 길목에 위치한 인도와 터키 등과의 일대일로 추진에 대한 전략적 충돌 및 인권침해 문제 등의 외교 마찰로 인해 연선국가와의 원활한 협력 확대 한계성이 존재함.
- 일부 중국학자들은 중국이 제시한 국유기업 투자의 투명성 제고, 지적재산권 보호 및 표준 구축 등에 대한 조치 및 계획의 시행 속도와 실효적 이행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밝히기도 함.⁵¹⁾

■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의 대내외적 직면과제 해결을 위해 국제협력 강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은 중국과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 발굴 및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모색 등 한·중 간 협력사업 추진 모델 구상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한국은 기술과학, 혁신, 녹색·친환경, 금융 등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새로운 사업 발굴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음.
 - 이번 포럼 기간 중국은 다수의 국가 및 기관과 녹색, 혁신, 표준 관련 협력 이니셔티브와 국가간 협력 플랫폼 구축, 협력 행동계획 및 양해각서에 서명
 - 한국 역시 신남방정책 추진에 있어 금융·조세 협력, 인프라 발굴·개발 및 수주지원, 신산업 및 과학기술, 첨단 보건의료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모델 창출 등의 계획을 제시⁵²⁾

49) 新华网(2019), 「习近平在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记者会上的讲话」, (4월 27일)

50) 『매일경제』(2019), 「시진핑 ‘일대일로’에 이탈리아까지 포섭해 ‘중국몽’ 박차」, (3월 24일)

51) 『매일경제』(2019), 「중국, ‘일대일로’세 키웠지만... ‘부채의 덫’ 비판은 속제」, (4월 28일)

52)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2019),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보도자료)」, (4월 30일)

- 또한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 등 양국간 새로운 협력모델 발굴과 함께 실무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양국 관련부처간의 논의와 합의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제2회 포럼 기간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 싱가포르 관련부처간의 제3국 시장 협력 양해각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제3국 시장 투자·융자 협력 양해각서 △프랑스 재정총서와 중·프 제3국 시장 협력 시범프로젝트(3차) 리스트 서명 △미즈호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관련 기구간의 제3국 시장 협력 협정서 등 체결⁵³⁾
- 한국은 중국이 기체결 및 추진하고 있는 제3국 시장 협력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협력 가능성 및 방안을 분야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KIEP**

53) 新华网(2019), 「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全文)」, (4月 27日)

[부록]

부록 표. 일대일로 관련 협력 프로젝트 및 협력 플랫폼

구분	사업명
상호연계 관련 경제회랑 및 기타 프로젝트	아디스아바바-지부티 철도 경제회랑 및 연선 공업단지(亚的斯亚贝巴-吉布提铁路经济走廊及沿线工业园)
	헤이쉐이(黑水)터널(黑水隧道)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초국경 철도와 바쿠 아리아트 자유경제구역(巴库-第比利斯-卡尔斯跨国铁路和巴库阿利亚特自由经济区)
	브루나이-중국 광시 경제회랑(文莱-中国广西经济走廊)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中国-中亚-西亚经济走廊)
	중·유럽 육해 쾌속선(中欧陆海快线)
	중국-중남반도 경제회랑, 중·라오스 경제회랑 포함(中国-中南半岛经济走廊, 包括中老经济走廊)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국제도로(中国-吉尔吉斯斯坦-乌兹别克斯坦国际公路)
	중국-라오스-태국 철도 협력(中国-老挝-泰国铁路合作)
	중국-말레이시아 친저우 산업단지(中国-马来西亚钦州产业园)
	중·몽·러 경제회랑(中蒙俄经济走廊)
	중국-미얀마 경제회랑(中国-缅甸经济走廊)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中国-巴基斯坦经济走廊)
	태국 동부 경제회랑(泰国东部经济走廊)
	그랜드 메콩강 지역 경제협력(大湄公河次区域经济合作)
	EU 범유럽 교통운송 네트워크(欧盟泛欧交通运输网络)
	유럽-카프카스-아시아 운송회랑(欧洲-高加索-亚洲运输走廊)
	중·벨라루스 공업단지(中白工业园)
	국제 남북 운송로(国际南北运输通道)
	빅토리아호-지중해 바닷길 항로 연결계획(维多利亚湖-地中海海陆航线连接计划)
	라무항-남수단-에티오피아 교통로(拉穆港-南苏丹-埃塞俄比亚交通通道)
	말레이시아-중국 관단 산업단지(马来西亚-中国关丹产业园)
	중국-네팔, 히말라야 압제 상호연결 네트워크 및 중-네팔 초국경 철도(中国-尼泊尔跨越喜马拉雅立体互联互通网络及中尼跨境铁路)
	신아시아유럽대륙교(新亚欧大陆桥)
	중국-싱가포르(충칭) 전략적 상호연결 시범프로젝트: 국제육해무역의 새로운 통로(中国-新加坡(重庆)战略性互联互通示范项目: 国际陆海贸易新通道)
	아프리카 북부 통로(모바사항과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국가 및 범아프리카 도로 연결)(非洲北部通道(连接蒙巴萨港和非洲大湖区国家以及泛非公路))
	카이로-케이프타운 남북 통로(开罗-开普敦南北通道)
	피레아스항(比雷埃夫斯港)
	에티오피아-수단항 철도 상호연결(埃塞俄比亚-苏丹港铁路互联互通)
	인도네시아 지역 종합 경제회랑(印度尼西亚区域综合经济走廊)
	수에즈운하 경제구역(苏伊士运河经济区)
	북방 해항로 화물운송(北方海陆航线货物运输)
	환태평양 해저 광케이블(跨太平洋海底光缆)
	베트남 '양랑 일권(two corridors and one ring)' 발전계획(越南“两廊一圈”发展规划)
	중국-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국제도로(中国-塔吉克斯坦-乌兹别克斯坦国际公路)
전문 분야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 및 플랫폼	“일대일로” 국제협력 고위급 포럼 자문위원회(“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咨询委员会)
	“일대일로” 국제과학조직연합(“一带一路”国际科学组织联盟)
	청령 실크로드 베이징 이니셔티브(康吉丝绸之路北京倡议)
	“일대일로” 에너지 파트너십(“一带一路”能源合作伙伴关系)
	“일대일로” 조세협력 시스템(“一带一路”税收征管合作机制)
	“일대일로” 언론협력연합(“一带一路”新闻合作联盟)
	“일대일로” 국제 싱크탱크 협력위원회(“一带一路”国际智库合作委员会)
	“디지털 실크로드” 이니셔티브(“数字丝绸之路”倡议)
	“일대일로” 융자지도 원칙(《“一带一路”融资指导原则》)
	국제실크로드과학원(国际丝绸之路科学院)
	“일대일로” 녹색발전국제연맹(“一带一路”绿色发展国际联盟)
	“일대일로” 국가 지적재산권의 실무적 협력 확대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关于进一步推进“一带一路”国家知识产权务实合作联合声明》)
	중앙 유럽 반열 운송 합동 작업반(中欧班列运输联合工作组)
	해상 실크로드 항구협력 Ningbo 이니셔티브(《海上丝绸之路港口合作宁波倡议》)

구분	사업명
포럼 참가 측에서 제안한 기타 이니셔티브와 조치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非洲大陆自由贸易协定)
	그리스가 제시한 문명구국 포럼(希腊发起的文明古国论坛)
	2019년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217차 비공식 정상회의(2019年将在智利举行的亚太经合组织第二十七次领导人非正式会议)
	중·벨라루스 “일대일로” 전문 포럼(中白“一带一路”专项论坛)
	몽골 및 기타 관심 있는 국가의 육지와 공항 관문에 “일대일로” 통로 건설(蒙古及其他感兴趣的国家在陆地和机场口岸设立“一带一路”通道)
	2018년 카자흐스탄 제1회 글로벌 실크로드 국가시장 포럼(2018年哈萨克斯坦第一届全球丝绸之路国家市长论坛)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글로벌 실크로드상(哈萨克斯坦倡议的全球丝绸之路奖)
	몽골이 제안한 “일대일로” 협력 촉진의 외교관 및 청년학자 표창(蒙古倡议奖励促进“一带一路”合作的外交官和青年学者)
	범아랍 자유무역협정(泛阿拉伯自由贸易协定)
	2019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제25차 유엔기후변화 프레임 협약체결국 대회(2019年将在智利圣地亚哥举行的第25届联合国气候变化框架公约缔约国大会)
	2018년 케냐에서 열리는 지속가능한 남색경제 회의(2018年在肯尼亚举行的可持续蓝色经济会议)
	UN 중재에 따른 국제화해협약(联合国关于调解所产生的国际和解协议公约)
	2018년 그리스에서 열린 UN 세계관광기구 실크로드투어 국제회의(2018年在希腊举行的联合国世界旅游组织丝绸之路旅游国际会议)
	바쿠 프로세스 프레임하의 세계 다문화 대화 포럼(巴库进程框架下的世界跨文化对话论坛)
	2018년 이집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포럼(2018年在埃及举行的世界青年论坛)

자료: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官方网站(2019), ‘共建“一带一路” 开创美好未来第二届“一带一路”国际合作高峰论坛圆桌峰会联合公报’.